

<너의 우주를 들어 줄게> 독후 활동지



A. C. 피츠패트릭 글, 에리카 메디나 그림, 권이진 옮김
불광출판사 | 40쪽 | 초등1~2학년
우리 아이 인성교육 시리즈 16

“

하룻밤 자고 일어났더니,
한 가지 이야기만 할 수 있게 된 마고는
어떻게 사람들과 대화하는 법을 터득할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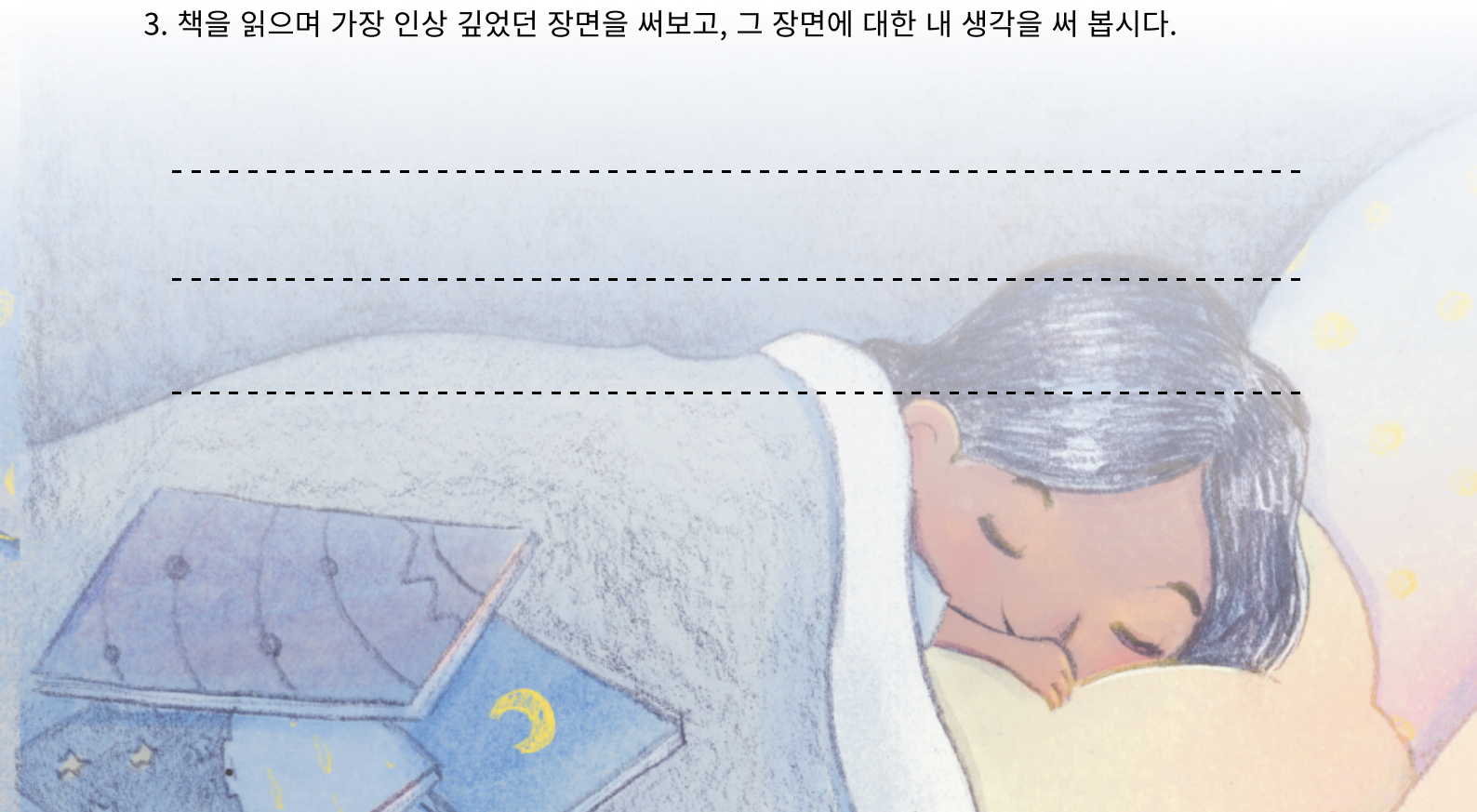
”

활동 내 얘기를 들어줘

1. 마고는 하루 종일 친구들과 부모님, 선생님에게 자신이 좋아하는 우주에 관한 얘기만 해요. 여러분은 마고의 이야기를 재밌게 들었나요? (재밌었다면 또는 아니라면) 왜 그렇게 생각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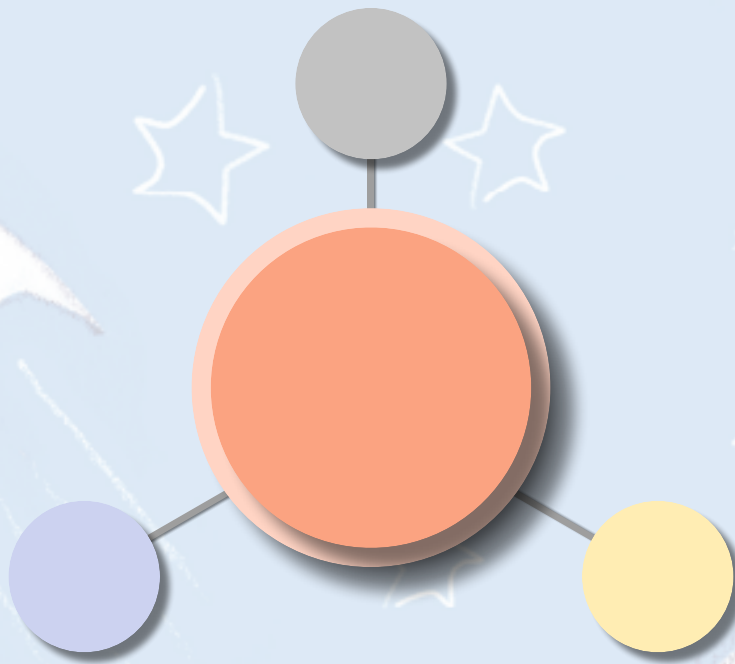
2. 처음엔 마고의 얘기에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지요. 각자 자신의 일을 할 뿐이었어요.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의 관심사에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그때의 내 기분은 어땠나요?

3. 책을 읽으며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을 써보고, 그 장면에 대한 내 생각을 써 봅시다.



활동2 내 생각 표현하기

아무도 자기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자 마고는 화가 났어요.
방에 들어가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생각나는 대로 벽에다 낙서를 했죠.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기분이 나아졌어요.
여러분도 하고 싶은 말, 좋아하는 것, 뭐든 생각나는 대로 아래 마인드맵에 적어 보세요.



위의 마인드맵에 적은 것 중 3가지를 고르고, 그 3가지를 연결해 하나의 글을 써 보세요.

<글의 주제:

>

말은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훌륭한 도구지만 유일한 방법은 아니에요.
어떨 때는 말하기보다 다른 방식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게 나을 때도 있지요.
우리는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고처럼 종이에 가득 낙서를 해볼 수도 있겠지요.
일기장에 차분히 적어볼 수도 있겠고, 동물이나 식물들에게 속삭여 볼 수도 있어요.
말하기 힘든 순간이 있을 때, 여러분이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활동3 뭐든지 들어주는 마니토

마니토란 상대방에게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편지나 선물, 선행 등을 제공하는 비밀친구를 말해요.

내 친구는 무엇을 좋아하고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할까요?

내 친구의 마니토가 되어 하루 동안 관찰해 봅시다.

내 생각을 잘 말하기 위해서는 잘 듣는 일이 중요하거든요.

그 친구가 하는 말을 귀 기울여 들어주고, 그 친구가 좋아하는 주제로 대화를 나눠봅시다.

그렇게 하루가 지났다면, 마니토의 정체를 밝히면서 친구에게 건넬 편지를 쓸 차례예요.

내 친구 _____야 안녕? 나는 오늘 하루 너의 말을 귀 기울여

들어주는 마니토였어. 하루 동안 너의 얘기를 들어보니, 너는 참

_____을 좋아하는 친구더라. 그리고 네가

해주었던 얘기 중에 _____

_____가 특히 기억에 남아. 앞으로도 종종 나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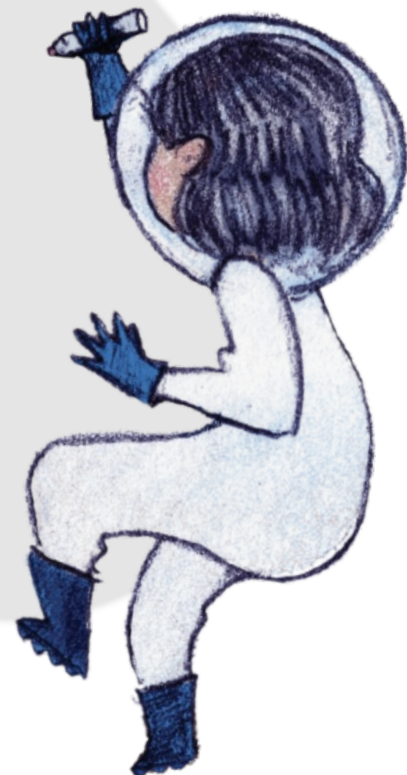
네 얘기를 들려주렴! - 너의 친구 _____가.

추신: _____

활동4

나의 우주를 소개합니다

우주 이야기를 좋아하는 마고는 온종일 우주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지요.
이제는 여러분의 우주를 소개해 줄 차례예요. 여러분이 요즘 가장 좋아하는 것,
가장 푹 빠져 있는 것, 가장 사랑하는 것, 바로 그것에 대해 표현해 주세요.
그림을 그려도 좋고 글을 써도 좋습니다. 자유롭게 표현한 후, 친구들에게 소개해 주세요.



활동5 동아리로 모여라

내가 좋아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을 만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세상에 내 이야기를 들어 줄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큰 힘을 얻을 수 있어요.
'동아리'라는 말을 들어 봤나요? 동아리란, 같은 관심사나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집단을 뜻해요.
여러분이 직접 동아리를 만들어서, 널리 홍보하고 동아리원을 모집해 봅시다.
여러분과 함께할 친구들을 더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 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아래 동아리 모집 포스터를 만들어봅시다.

동아리원을 모집합니다!

동아리 이름

회장(나) 소개

이런 활동을 할 거야

이런 사람을 환영해
